

# 이재명, 이번 주 '백현동'으로 검찰 출석

민간과 유착해 사업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성남시장 신분  
李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것”  
“김인섭,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 과거 해명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 오는 17일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4번째 검찰 출석으로,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조울 끝에 오는 17일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를 부른 것은 백현동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서다. 이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민간업자 측과 유착해 이익을 몰

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소환조사까지 마쳤다.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만 남은 상태다.

민간업자 측이 얻은 특혜로 지적되는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지 용도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가 정 대표 측에 영입돼 성남시에 로비를 한 결과,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조건이 정 대표 측에 유리하게 바뀐 것

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 맡는 등 여러 차례 선거 업무를 지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으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 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다고 조사했다.

이 대표 측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부 및 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저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친분을 부인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으로 이 대표를 각각 조사한 뒤 이후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기각됐고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조만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수원지검) 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지검 조사까지 마치면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 대표 구속영장 검토 여부에 대해서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아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수사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고흥 금산파출소, 휴가철 여행객 대상 교통사고 예방활동

고흥경찰서 금산파출소(소장 조중훈)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진도경찰·협력단체 합동 안전 캠페인 실시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지난 7일 진도 터미널 사거리에서 교통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 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담양소방, 태풍 '카눈' 피해 대응 총력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난 9일부터 10일 양일간 많은 비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에 따라 총력 대응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주 동부소방, 광주도시철도 2호선 소방안전교육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9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5공구에서 건설 관계자들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했다.

이슬비기자



## 여수해경, 청년인턴과 함께 디지털 약자 위한 수상안전교실 운영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디지털 약자인 고령층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해 조종면허 수상안전교실을 첫 시행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해양경찰교육원, '스마트 전자해도 콘솔' 자체 도입·운영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은 최근 학생들의 실무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전자해도 콘솔(터치식 디스플레이)'을 자체 도입, 기존 종이해도를 디지털화하여 수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물놀이 사망 '피서 절정' 8월 가장 많아...“맨몸 구조 위험”

## 부주의·수영 미숙 많아...강·계곡 위험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을 맞아 물놀이객이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5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36명이 숨졌다.

8월 사망자 수가 전체의 50.0%인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7월은 52명(38.2%), 6월은 16명(11.8%)이다. 사망 장소는 물놀이 시설로 관리되는 해수욕장(32명)과 유원지(1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이 덜 갖춰진 하천·강(43명)과 계곡(40명)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갯벌·해변에서 숨진 인원도 20명이나 된다.

사고 원인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과 같은 안전

부주의가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영 미숙 41명, 음주 수영 22명, 높은 파도·급류 13명, 튜브 전복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 수영의 경우 음주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즐기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유속이 빠른 위험·금지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호우나 이안류(역파도) 특보가 내려졌을 때에는 즉각 물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물놀이 전에는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팔→얼굴→가슴)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어린 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때에는 보호자가 항상 지켜보며 장난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소리쳐 주변에 알려야 한다.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튜브·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안전하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자’를 적극 홍보·안내하고 있다.

이명수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물놀이 안전을 비롯해 국민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안전실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10대 청소년 문 안 잠긴 전기차 훔쳐 타다 사고

10대 청소년 4명이 문이 잠기지 않은 전기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2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초등학생 A(12)군과 중학생 B(14)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다른 중학교 3학년 2명과 이날 오전 4시께 대전 유성구 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전기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운전 중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에 2명을 내려준 뒤 약 7~8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유성구 외삼동의 한 주유소 간판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B군을 붙잡았으며 나머지 중학생 2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 중이다.

오유나기자



## 스카우트 대원들, 좋은 추억과 함께 출국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을